

小兒看病要訣 (心誠賦)

孟 華 雙 譯

○ 欲保赤子이면 全丈心誠이로다.

- 발가숭이 아이의 健康을 保全하려면 오직 마음의 정성을 다 하여야 한다.

○ 口不能言其疾苦하고 脈難以決其浮沈이다.

- 입으로는 能히 其疾病이나 苦痛을 말하지 못하고 脈으로는 其浮하고 沈함을 決定하기 어렵다.

○ 外感六邪는 風寒火邪가 易襲이요. 內因諸症은 心肝脾臟이 爲多로다.

- 바깥으로 感觸되는 風寒暑濕燥火의 六邪中에는 風寒火의 邪가 쉽게 侵襲하는 것이요. 體內에서 發生되는 모든 症狀은 心肝脾의 三臟에서 오는 것이 많다.

○ 小兒는 多啼則傷肝하고 多食則傷脾하며 多驚則傷心하니 多三臟病이 多니다.

- 小兒는 많이 울면 肝이 傷하고 많이 먹으면 脾가 傷하며 많이 놀라면 心이 傷하니 거의 三臟의 病이 많다.

○ 欲觀氣色하려면 먼저 그 部位를 分別하라.

- 氣色을 觀察하려면 먼저 그 部位를 分別하라.

○ 左頰은 屬木하니 爲肝이요. 右頰은 屬金하니 爲肺니다.

- 왼쪽 볼은 木에 屬하니 肝의 部位가 되고 오른쪽 볼은 金에 屬하니 肺의 部位가 된다.

○ 天庭은 高하니 爲心火之位하고 承漿은 低하니 爲腎水之區이다.

- 이마는 높아져 心火의 部位가 되고 턱은 낮아 腎水의 部位가 된다.

○ 脾土는 中央이요. 鼻는 爲通氣니다.

- 脾土는 中央에 位置하고 鼻는 通氣가 된다.

○ 肝靑하고 腎黑함은 木水之色이니 主驚寒이요. 肺白하고 心紅함은 金水之色이니 爲虛熱이라

- 肝의 靑함과 腎의 黑함은 木과 水의 色이니 靑은 驚함이요. 黑은 寒이며 肺의 白함과 心의 紅함은 金과 水의 色이니 白함은 虛함이요. 紅함은 熱이다.

○ 土色은 黃現하고 疳食症이 多이니라.

- 脾土의 色은 黃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疳食症이 많음이라.

○ 欲窮其變하면 再察五官하라.

- 變症을 窮究하려면 다시 五官을 살펴보아라

○ 鼻雖中央이나 肺竅通하여 聲重鼻塞함은 風寒을 可見함이며 舌은 乃心苗이니 紅滑은 順而 乾黑者는 熱이요. 唇雖赤色이나 脾氣應하여 燥腫生瘡함은 脾熱을 自詳함이라. 目은 爲肝竅니 赤腫은 熱而有神者는 生하느니라.

- 鼻는 비록 中央에 있으나 肺竅가 通하여 목소리가 쉬고 코가 막힘은 風과 寒이 侵犯함을 나타냄이고 舌은 바로 心의 苗가 됨이니 붉고 滑함은 順한 것이고 마르고 검은 것은 熱이며 唇은 비록 赤色이나 脾氣가 應함이니 燥하고 腫하고 瘡가 생김은 脾熱임을 스스로 알 수 있으며 目은 肝竅가 됨이니 赤하고 腫하면 熱로서 精神이 있는 것은 生하는 것이다. (舌乾은 主로 心熱이요. 乾하고도 黑하면 熱이 있음이니 難治이다.)

○ 胃는 流注于雙頤하니 風熱이 內攻則紅腫하고 腎은 開竅于兩耳하니 腎元이 德損則黑枯

나라.

- 胃는 頤의 兩便으로 流注함으로 風熱이 內攻하면 頤가 紅腫하고 腎은 兩耳로 開竅함으로 腎臟精力이 損耗되면 耳가 聾게 마른다.

○ 繞耳經絡은 足少陽이니 暴聾과 紅腫이 其過在膽이요. 牙床經絡은 二陽明이니 齒遲와 枯燥는 病歸乎腎이나라(上床은 足陽明이요. 下床은 手陽明이다)

- 耳를 지나는 經絡은 足少陽膽이니 귀가 갑자기 먹는 것과 귀가 발갛게 붓는 것은 그의 責任이 膽에 있고 牙床을 流注하는 것은 두가지 陽明이요. 齒牙가 늦게 나는 것과 齒牙가 枯燥하는 것은 病이 腎에 있는 것이다.

○ 再觀其外하여 以和其內하라(以下는 活幼指南이다.)

- 다시 그 外形을 보아서 그 內部를 알아야 할 것이다.

○ 紅氣가 現而熱蒸이요. 靑色이 露而驚悸나라.

- 붉은 氣가 나타나는 것은 熱이 번창하는 것이요. 푸른색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서 두근거리는 것이다.

○ 如煤之黑으로 分中惡之因하고 似橘之黃으로 分脾虛之謂나라.

- 그을름과 같이 검은 色으로 中惡의 原因을 알 수 있고 橘과 같이 누른 色으로 脾臟이 虛함을 알 수 있다.

○ 白은 乃疢勞요. 紫는 爲熱極이며, 靑이 遮口角하면 扁鵲도 難醫이며 黑掩太陽하면 盧醫莫治나라.

- 白은 바로 疢勞가 되고 紫는 熱이 極한 것인데 靑色이 口角을 덮으면 扁鵲과 같은 名醫도 고치기 어려우며 검은 色이 太陽穴까지 덮으면 盧國의 醫仙인 長桑도 治療하지 못할 것이다.

○ 耳壽가 赤光兮여 多生膿血하고 山根이 靑色兮여 頻見炎危이다.

- 年上과 壽上(鼻의 準頭以上에서 山根以下까지)이 발갛게 빛이 나면 대부분은 膿血이 生하는 것이고 山根(眉間下)에 靑色을 띠는 것은 炎危을 자주 볼 수가 있다.

○ 瀉痢而一陽者는 須防이요. 咳嗽而抱藍者는 可畏나라.

- 泄瀉와 痢疾을 發해도 적게라도 陽氣가 있으면 모름지기 防止할 수가 있고 咳嗽하면서 藍色을 띤 者는 危殆롭다.

○ 疼痛方殷은 面靑唇撮眉自蹙이요. 驚風欲發은 面赤, 目直, 腫多驚이라.

- 疼痛함이 바야흐로 盛하면 面靑하거나 口角이 당기거나 眉間이 스스로 찌푸러 질 것이요. 驚風이 發하려 하면 얼굴이 붉거나 눈을 直視하거나 자면서 자주 놀란다.

○ 火光이 燄燄함은 外感風寒이요. 白氣가 浮浮하면 中藏癰積이라.

- 熱이 화끈화끈하게 나는 것은 風寒에 外感된 것이요. 金氣의 찬기운이 넘쳐오는 것은 內臟 속에 癰積이 있는 것이다.

○ 乍白乍黃兮여 疢熱이 連綿이요. 又赤又靑兮여 風邪가 緊急이라.

- 잠깐 희다가 잠깐 노랗게 되는 것은 疢熱이 끊이지 않는 것이요. 또 붉다가 푸르게 되는 것은 風邪가 緊急하게 오는 것이다.

○ 察之苦精하여 治之得理하라.

- 이를 觀察하기를 精確히 하여 治療하는데 理致를 透得하게 할 것이다.

○ 鴉聲魚口는 樞費精神이요. 內折皮乾은 空勞氣力이다.

- 갈가마귀 소리를 내고 고기입 같이 되는 것은 精神을 헛되이 消費할 뿐이고 살이 여위고 가죽이 마르는 것은 公연히 氣力에 手땀을 끼칠 뿐이다.

○ 氣色이 頓移하면 形容이 變畢하나라.

- 氣色이 別안간 옮겨지면 形容도 다르게 變化

가 온다.

○ 氣乏則脾冷하고 腎虛則滯頤니라.

-기운이 缺乏되면 脾臟이 冷해지고 腎氣가 虛弱해지면 턱에서 침을 흘리니라

○ 面目이 虛浮하면 定腹脹而氣喘하고 眉毛가 頻蹙하면 則肚痛而多啼니라.

-얼굴이 蒼白하면서 부으면 바로 腹脹하면서 氣喘이요 眉毛가 썩그러지면 바로 배가 아파서 많이 우는 것이다.

○ 虻出兮여 脾胃가 將敗은 蠅蟲兮여 肚臟이 先虧함이니 苟一臆眩而弗瘳은 總 虛扁而何益가 蛔蟲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脾胃가 損傷되려는 徵兆요, 蟲이 먹어들어가는 것은 內臟이 먼저 損傷되는 것이니, 눈을 감으면 眩하고 낮지 않으니 長桑과 扁鵲같은 名醫인들 무슨 利益이 있으리요.

○ 手如數物兮여 肝風이 將發이요. 面若塗硃兮여 心火가 已熾니라

-손가락으로 셈을 세는것 같이 하는 것은 肝風이 發하려 하는 것이요. 얼굴에 硃砂를 바른것 같이 붉은것은 心火가 이미 타버린 것이다.

○ 坐臥愛冷兮여 煩熱은 攻이요. 信縮就煖兮여 風寒之畏니라.

-앉거나 눕거나 찬것을 좋아하는 것은 煩熱이 侵攻해 온 것이요. 땀거나 오므리거나 따뜻한 것만 좋아하는 것은 風寒을 畏하는 것이다.

○ 肚大脚細兮여 脾欲固而成疴이요. 瞳目張口兮여 熱已危而必斃니라.

-배는 부르고 다리가 가는 것은 脾가 困倦하여 疴疾이 되는 것이고 눈이 튀어나오고 입을 벌리는 것은 熱이 다 되어 반드시 죽는 것이다.

○ 弄舌은 脾熱이요. 解頤는 腎憊이다.

-혀를 자주 놀리는 것은 脾熱이요. 泉門의 縫습이 안되고 연한것은 腎氣가 缺乏됨이다.

○ 重舌木舌兮여 虛熱이 積于心脾요. 哽氣喘氣兮여 實火가 浮于肝肺니라.

-重舌이나 木舌이 됨은 虛熱이 心脾에 가서 쌓

인 때문이요. 목이 메어 막히거나 천식이 오면 이는 實火가 肝經과 肺經에 떠올라오기 때문이다.

○ 齟宜息露는 必是牙疳이라.

-齟음을 설때마다 잇몸이 들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는 牙疳이다.

○ 哺露丁咳는 多緣食積이라.

-哺露疳이나 丁咳疳은 거의가 食積으로 因緣된다.

○ 唇乾은 自作渴이요. 腸鳴은 必自利니라.

-입술이 마르면 저절로 渴症이 오고 腸이 부글거리면 반드시 泄瀉를 한다.

○ 夜啼는 分爲四症이요. 變蒸은 週于一歲니라.

-夜啼症은 네가지로 分類되고, 「조름뜨는것」은 1年을 週期로 한다.

○ 心熱은 欲言而不能이요. 脾虛는 無時而好睡니라.

-心이 熱하면 말을 하려해도 잘 안나고 脾가 虛하면 아무때나 잠이 잘 온다.

○ 病後失音者는 腎怯이요. 咳嗽失音者는 肺痿니라

-病後에 목이 잠기는 것은 腎氣가 弱하기 때문이요. 咳嗽하면서 목이 잠기는 것은 肺의 機能이 나빠지는 것이다.

○ 肚痛而清水流出者는 蟲이요. 腹疼而大便酸臭者는 積이라.

-배가 아프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은 蟲이요. 배가 아프면서 大便에서 쉰냄새가 나는것은 積이다.

○ 口頻撮而虛寒이요. 舌長伸而火熾니라.

-입을 자주 오무리는 것은 虛하고 寒한 것이요. 혀를 길게 뻗쳐보이는 것은 火가 타기 때문이다.

○ 龜胸兮여 肝火가 乘于 肺膈이요. 龜背兮여 腎風이 入于骨髓니라.

-龜胸은 肝火가 肺의 膈膜을 타고 올라감이요

龜背는 腎의 風이 骨髓로 들어감이다.
 ○鼻乾黑燥兮여 火甚金衰은 肚大青筋兮여 木強土潰니라.
 -코가 마르고 검어지며 燥하여 지는것은 火氣甚하고 金氣는 衰한 것이요. 배가 팽대하여 지면서 푸른심줄이 나타나는 것은 木氣는 強하여지고 土氣가 崩潰하여 짐이다.
 ○丹癩瘡疥는 皆胎毒도 連纏이요. 吐瀉瘧痢는 乃食積之滯丹이다.
 -瘤나 瘡이나 疥는 모두 胎毒이 連하여 얽히는 것이요. 吐나 瀉나 瘧이나 痢는 바로 食積이 갑자기 滯하는 것이다.
 ○不能吮乳者는 熱在心脾요. 常欲俯臥者는 火蒸脾胃니라.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은 熱이 心脾에 있는 것이요. 항상 엎드려 누우려 하는 것은 脾胃를 火가 쥘는것이다.
 ○喜視燈火者는 煩熱이 在心이요. 愛吃泥土者는 疳熱이 在脾니라.
 -燈火를 보는것을 좋아하는 것은 煩熱이 心에 있는 것이요. 진흙 黃土를 잘 먹는 것은 疳熱이 脾에 있는 것이다.
 ○腹痛은 寒侵이요. 口瘡은 熱積이라.
 -배가 아픈것은 寒氣가 侵犯한 것이요. 입이 헤지는 것은 熱이 쌓여 오는 것이다.
 ○臍風은 忌于一臙이요. 火丹은 畏于一週니라.
 -臍風은 初生後 七日이 가장 危險하고 火丹은 發生한지 一週日이 가장 危險하다.
 ○驚自熱生이요. 癘因痰致니라.
 -驚하면 스스로 熱이 生하고, 癘疾은 痰으로 發生하는 것이다.
 ○吐瀉而精神이 好者則危은 瘧痢而飲食이 減者則瘳니라.
 -吐瀉에는 精神이 좋아도 危險하고 瘧이나 痢에는 飲食이 줄어들면 고달프다.
 ○驚心生이요. 風由肝致니라.

-驚은 心을 根本으로 하여 生하는 것이요. 風은 肝으로 말미암아 發하는 것이다.
 ○搐合左右여 症有順逆이요. 藥分補瀉兮여 病有虛實이로다.
 -搐擊하는 症은 左右에 따라서 順症과 實症으로 區別된다.
 ○急驚也엔 由于積熱之深이니 涼瀉偏宜하고 慢驚也엔 等于火病之後니 溫補爲貴니라.
 -急驚은 積熱이 深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오로지 涼하고 瀉하는 藥이 宜하고 慢驚은 火病後에 얻는 것이니 溫하게 補하는 것이 가장 貴하도다.
 ○頭搖目攙而氣喘兮여 上土도 莫醫며 口噤鼻張而氣冷兮여 神丹인들 何濟요.
 -머리가 흔들리며 눈도 安定이 안되며 숨을 헐떡거리는 것은 훌륭한 의사도 醫員노릇을 못하겠고 입을 악 물고 코가 벌터이며 氣息이 冷한 것은 神藥인들 어찌 건질 수 있겠는가.
 ○閉目兮여 無魂이며 狂叫兮여 多祟이로다.
 -눈을 감고 뜨지않는 것은 魂이 없는 것이요. 미쳐서 소리치는 것은 대부분 邪祟으로 오는 것이다.
 ○不知吞吐者는 死하고 反加悶亂者는 危니라.
 -삼키고 吐하는 것도 모르는 것은 死亡하고 도리혀 가슴을 매우는것 같으면서 精神이 散亂해진 것은 危險한 것이다.
 ○且如病則熱起하고 熱則驚生하며 或 制熱以熱하되 或 攻熱以寒하나니라.
 -또 病이면 熱이 起하는것 같고 熱하면 驚이 生하며 或은 熱을 制하는데 熱로서 하고 或은 熱을 攻하는데 寒으로써 한다.
 ○襁褓未寧兮여 但調其母하고 匍匐不快兮여 當固其元이라.
 -襁褓에 싼 아이가 편안치 않으면 단지 그의 母를 조절할 것이요. 땅에다 배를 대고도 匍匐이 시원치 않는것은 마땅히 그의 根元을

곧건히 할것이니.

○奈何요.

-어찌하리오.

○瀉久成痢하고 積久成疳하며

-泄瀉가 오래되면 痢疾이 되고 食積이 오래
되면 疳病이 되는 것이며.

○瘡久生癬이요. 驚久成癩이라.

-瘡疾이 오래 가면 癬塊가 생기고 驚風이 오
래 가면 癩疾이 되느니라.

○未到留連兮 攻之宜速이요. 已見沈疴兮 治
之宜緩이라.

-連하여 머무르기에 이르지 않는것은 이를 攻
擊함이 빠를수록 좋고, 頑固한 慢性疾患이 나
타나면 緩慢하게 治療함이 좋을 것이다.

○腸胃가 秘結兮 急瀉而已요. 氣血이 虛乏兮
여 急補而安이로다.

-腸胃가 通하지 못하고 秘結하면 빨리 瀉해야
할뿐이고 氣血이 虛하고 乏하면 빨리 補하여 便
安케 할 것이다.

○此는 皆指南之活幼니, 何疑治病之萬全 이리
요.

-이는 모두 幼兒를 살리는 指鍼이 되는 것이
니 어찌 治病의 萬全함을 疑心하리오.

藏示吉은 曰

◎ 小兒之病은 口不能言 故로 曰 啞科라 하니
惟賴望色으로 驗症하고 察紋切脈하여 以知其臟
腑之微는 實로 難事也라 故로 庸工治病은 遂
拘小兒病 食上起之說하고 概施消導攻代로 品하
니 實者는 偶甬中病이나 虛者는 遂至重虛하니
良可憫也로다. 卽 有智者는 不遵古人之遺意하고
常時已之聰明하여 或致弄巧而成堀하고 以致
智愚相去하니 其間이 不能以寸이요. 此故로 維
何요. 皆困不辨明其寒熱虛實 外感內傷之故也 라
予不揣愚陋하고 將 六症分明于後하니 一見了然
하면 使無疑似之嫌이요. 如兼他症에 隨症加減이
又存司命者之方寸耳니라.

◎ 凡 小兒가 頭疼 發熱 鼻塞 聲重하며 咳嗽하
고 手背熱하며 惡風寒함은 皆屬外感이나 無汗
하고.

◎ 脈浮緊함은 傷寒이요.

◎ 自汗하고 脈浮緩함은 傷風이며.

◎ 暑月에 吐瀉作渴하고 齒燥하며 脈虛하면 傷
暑요. 浮腫하고 減瀉하며 身重하고 小便이 不
利하며.

◎ 脈이 濡細함은 傷濕이며, 舌乾하고 口燥하며
唇焦하고 面赤하며 或聲啞하고.

◎ 脈數함은 傷熱이니라.

◎ 凡 見小兒가 噯氣하고 飽悶하며 作酸하고
腹膨하며 不思食 及 惡聞食氣와 不減臭屁하고
惡心하고 乍吐 乍瀉하며 寒熱하고 或 腹中에
硬塊作痛하며 手心이 熱하고 脈이 弦滑함은 俱
屬內傷飲食으로 已上 二症이 最多니라.

◎ 凡 見小兒 發熱無汗은 表實이요.

大便閉는 裏實이며 心胸이 飽悶하고 腹中이
膨脹하며 惡心 噯氣하고 吐出酸水하며 手足이
有力하고 腹痛하며 手不可按하고 脈이 洪實有
力함은 俱屬實症이라.

◎ 凡 見小兒 面이 皃白하고 無神하며 懶言하
고 氣短하며 不思食하고 腹膨이나 不痛하며 二
便이 如常하고 喜臥하며 眼喜閉하고 手足이 無
力하며 慢驚으로 入하여 吐 冒 虛하고 久瀉하
며 脫肛함은 脾虛은 自汗은 表虛며, 自利는 裏
虛은 脈來微細無力 及 行遲와 髮遲와 齒遲와
解顛와 鶴節은 俱屬腎氣未成으로 元精이 不足
함이니 已上은 俱屬虛症이니라.

◎ 凡 見小兒 發熱하고 手足心이 熱하며 面紅
하고 唇乾하며 舌乾하고 口渴하며 口上에 生瘡
하고 口中에 熱臭하며 大便이 秘하고 小便이
赤黃하며 或은 痢下 黃赤하고 肛門이 焦痛하며
喜飲冷水하고 喜就涼處하며 腹中이 熱痛하고

脈來洪數하면 俱屬熱症이니라.

◎ 凡 見小兒 面白하고 唇靑하며 手足이 冷하
고 口中的 冷氣와 或은 泄痢가 清白하고 無熱
不渴하며 腹痛이 悠悠하고 無增減하며 或은
惡心 嘔吐하고 喜就 煖處하며 脈來沈遲無力하면

俱屬寒症이니라.

◎ 已上 諸症은 每症을 不必悉俱오. 凡見 一
二하면 便作主張治之오. 若二癍二症이 兼見者는
須照本條하여 斟酌蓋善하면 自能中病也니라.